



깨침의 문은 어디입니까!

대자암 무문관 입관 추천하던 날



계룡산 대자암은 2002년 시작한 3년 결사에 이어 올해 11월 동안거부터 두번째 3년결사를 시작한다. 사진은 무문관 입관을 위해 추천에 참가하고 있는 수좌들.

비구 비구니 21명 선발...올 동안거부터 3년간 '두문불출' 결사

계룡산 감사 대자암은 서울 천축사에서부터 40여 년간 계속되어 온 무문관 수행의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다.
8월 21일 대자암에서는 조실 정영 스님의 주관으로 올해 음력 시월보름 동안거부터 무문관 3년 결사에 들어갈 수좌 21명을 선발하는 입관 추천이 있었다. 올 2차 결사에 동참할 뜻을 밝힌 조계종 수좌는 모두 100여명. 남다른 각오로 이날 오전 대자암 마당에 모인 인원은 그 절반인 50명이었다.
오후 1시, "포르록 포르록" 목탁 소리가 계룡산 자락에 울려 퍼졌다. 비장한 결의가 느껴지는 비구·비구니 수좌들이 법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 뒤로 신기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재가자들이 따라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법당에 모인 수좌들의 꽃꽂이 기공과 푸른 눈빛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신심이 나게 했다. 인자한 미소를 띤 정영 스님이 나지막한 어조로 추천의 시작을 알렸다.
"을유년 동안거 무문관 입관 추천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영 스님은, 1차 결사때보다 많은 인원이 입관을

희망하자. 이번에는 일종의 산통(算筒, 강원 수업에서 발표자를 뽑을 때 쓰는 대나무통)과 같은 방식으로 꼭지 추천을 하기로 했다.
왜 하필 추천으로 입관자를 뽑으려 할까? 의문이 들법했다. 여기에는 한국불교의 전통인 산통방식으로 정진에 들어갈 수좌를 선정해야 할 만큼 많은 수좌들이 물린 탓도 있지만, 매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평정대함을 강조하는 정영 스님의 고민이 담겨 있다.
먼저 추천을 위한 번호표 뽑기가 시작됐다. 스님들은 나무쟁반에 놓인 녹색쪽지를 차례로 집었다. 추천도 먼저 뽑는 이가 유리하다는 사비를 줄이기 위해 순서를 정하는 것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이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영 스님이 번호를 부르기 시작하자 비구 비구니들은 앞으로 나와 합장 반배 후 쟁반에 놓인 흰 쪽지를 집어 자리로 돌아갔다. 무문관 입관을 허락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받은 비구 13명과 비구니 8명이 결정됐다. 이들은 11월 16일 동안거 결제를 앞두고 대자암으로 다시 모인다.

곧이어 정영 스님이 손수 쓴 축원문을 낭독했다. "원을 세워 바라옵건대 충청남도 대자암 3년 결사 무문관 입관하는 스님, 못 하는 스님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를 청하옵나니. 결사에 입하는 수좌들은 마장이 사라지고 공부가 순일하여 확철대오(確徹大悟)하고 모든 신통력 갖추어 중생제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옵나니."
지난 1차 결사에 이어 2번째 3년 결사를 허락 받은 서범 스님은 "이번엔 시행착오 없이 처음보다 더 열심히 정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범 스님은 1차 결사에서 건강문제로 애를 먹었다.
이날 8명의 수좌가 지난 1차에 이어 한번도 하기 어렵다는 무문관 결사에 다시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 공부는 오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한 사람이 이루는 공부"라는 정영 스님은 "오늘 오신 스님들 가운데 중생을 제도할 힘을 갖춘 명안종사가 반드시 나오길 바란다"며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이날 추천을 마친 스님들은 11월 26일부터 시작될 동안거를 기약하며 3년 결사 준비를 위해 총총히 하산했다. 글·사진/광주=조용수 기자



꽃꽂이 수좌들의 기공이 느껴진다.



한국불교 전통의 산통 방식으로 진행된 추천에서 비구 13명, 비구니 8명이 선발됐다.

문 없는 문, 무문관(無門關)

무문관 수행은 한번 시작하면 외부의 모든 일을 알리와 단절할 채 '이 자리에서 깨치지 못한다면 일어서지 않으리라'는 각오로 오직 화두에만 정진하는 한국 선종수행의 가장 가혹한 수행법이다.
일단 들어가면 정해진 기한이 되기 전에는 절대 문을 열지 않는다. 실제로 올해 4월 대자암에서는 비구스님 헌분이 무문관에서 정진하던 중 열반했다. 목숨은 물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깨달음을 얻겠다는 각오 없이는 쉽게 도전하지 못한다.
무문관은 원래 중국 송나라 선승인 '무문혜개(無門慧開) 선사'가 지은 책 이름에서 유래했다. 경허 효봉 관음 재선 스님 등 근대 선지식들도 이 무문관 수행으로 자신의 공부를 단련했다.

문잠그고 4~5평 방서 3년 정진 이불, 자명종, 좌복이 전부 공양구로 식사 하루에 한번 전갈 결사중 수시로 공부 진척 점검

계룡산 서편에 자리 잡은 대자암 무문관은 '삼매당(三昧堂)'이란 이름의 선방이다. 4~5평 크기로 삼매당 2, 3층에 4칸, 7칸씩 배치되어 있다.
3년 동안 아무도 만지지 않았을 문고리는 심하게 녹이 슬어 있었다. 각 방마다 조그만 세면시설과 간단한 이불, 개인사물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지대방이 있다. 방바닥에는 작은 자명종 하나와 좌복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수행자 자신의 수행의지를 다지는 선사 화두를 적은 종이 벽에 붙여놓은 방도 있었다. 방 한구석 빛바랜 종이에 연필로 꼭꼭 눌러 쓴 '필라레(타이베트불교의 성자)'의 시가 인상적이었다.
완전히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무문관 안에서도 정해진 일과는 있다. 스님들은 참선정진을 않는 시간을 이용해 화장실사용과 샤워, 삭발, 운동을 해야 한다. 조그만 소리라도 옆방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식사는 하루 1번 구멍처럼 뚫어 놓은 공양통으로 찬밥에 밥과 찬, 간단한 국을 안으로 들인다.
무문관 안에 있는 동안은 당연히 묵언이라 기묘한 운무는 이때 때때로 해결한다.
평소 수행으로 단련된 스님들이라도 갑자기 몸을



대자암 무문관이 있는 삼매당의 모습.



동안거부터 3년간 폐문정진에 들어갈 대자암 무문관.

가두고 하루 1종식을 시작하면 처음 3개월가량은 매우 힘들어한다. 그러다 차츰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해 나가면서 조금씩 정진력이 생겨난다고 한다.
공부의 점검은 정영 스님이 직접 한다. 1차 결사가 중반을 지났을 무렵인 지난해 가을 각방으로 대화노트 1권이 들어갔다. 수시로 A4용지도 들어갔다. 정영 스님은 각자 자신의 공부가 어디쯤인지를 적어내게 했다. 각자가 겪고 있는 경계의 정도를 가늠하고 답을 주는 것이다.
한편 무문관 3년 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대자암은 경제적 어려움이 만만치 않아, 3년 결사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041)875-5880 후원계좌 310623-02-033475 우체국 문판오(정영). 조용수 기자

2005학년도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현 공 풍 수

■ 교육기간 : 2학기 과정
■ 강의시간 : 초급 - 수요일 오후 6시 - 8시 50분
중급 - 월요일 오후 6시 - 8시 50분
■ 접수기간 : 8월 1일 - 9월 2일(오전 10시 - 오후 3시)
■ 담당교수 : 선공세준
■ 교수역력 : 활발선원 원장,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포천중문과대학 보건대학원 외래교수
■ 학기당 학습비 : 300,000원
■ 교 재 명 : 현공풍수학(선공세준 편역 011-706-4090)
■ 교육목표 : 현은 통일과 하도를 뜻하고 공은 공간낙서를 뜻하며, 현공이란 시간, 공간, 방위의 기를 상호 전환하는 방정식으로 선후천 팔괘오행을 현대적 에너지 기를 파악하여 1-9까지 구성 천문에 따라 기의 배치와 요, 주택, 도시건축, 아파트, 상가, 빌딩 등 자연과 인간 환경 전반분야에 풍수의 길흉에 대해 조사하여 비보 개선하는 최상승 풍수 법술이다.

■ 강의내용
초급반
• 현공풍수의 대의 : 양택의 가량배치와 풍수사상
• 현공 역리와 남강 오행 : 풍수역학과 기의 과학적 요인
• 현공풍수학의 길흉화복의 근거 : 형기론 이론 물형론 종합
• 현공풍수 학파(현공 풍수 인물) : 역래풍수(양택상)와 비성(현공)풍수의 역평
• 현공풍수 하도낙서의 핵심 : 낙서 후천팔괘의 결합
• 현공구성의 운형 : 구성의 계적과 공간방위의 정립
• 현공 성반(주택과 방위법) : 왕성과 비왕성의 관계
• 현공구성의 사물변화 현상법술 : 하도수와 운반관계 (주택, 묘, 공간, 기술법)
• 현공풍수 별의 순서 정하는 법 : 24 상향 음양 영경 (묘지주택 정하는 법)
• 현공풍수의 청구 : (주택, 묘, 도시, 상가, 아파트, 인테리어)
• 지문과 입수 운기법
• 정음(淨陰), 정양(淨陽), 남강(納甲)법 : 천문 연월일시 기준과 2분 2지
• 성문 이공을 논하는 법 : 물의 종류와 물의 영향에 관하여
• 반음 복음, 음양 합성법 : 음의 지세와 형구 명당보는 법

• 포대 시대국 수법 허와실(虛實) : 삼반삼침(三盤三針), 正氣 總 원리
• 현공 간용법, 장풍법, 득수법, 정월법, 좌향법, 형국법
• 용혈사수(龍穴砂水向) 아파트 실내풍수인테리어 코드 (책상, 침대, 주방, 소파 등등)
• 삼합반(三合盤) 9층 패철(佩鐵)과 현공원반과 천문풍수
• 천지인(天地人)공간의 원방각 기 측정원리

중급반
• 현공 애성 해괘 변수법, 성문2궁법, 칠성 타건, 현공풍수의 증명

● 공개 강좌 : 9월 7일(수) 오후 6시
● 온라인 접수 : 조흥은행 313-03-004148 (예금주:동국대학교) 홈페이지 <http://dgucc.dongguk.ac.kr>
● 문의전화 : 사회교육원 ☎ 02)2260-3728~9
● 개인지도 : 원방각 - 서울 서초구 서초 2동 교대사거리 큐브플러스 1513호 02)587-2855 / 011-706-4090